



이 자영 | 주니어환경디자인팀장  
(ly3331@hanmail.net)

# 오래된 미래의 청사진, 발렌시아 투리아(Turia)강

##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옛날 김영랑 시인이 노래했던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처럼,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역설법이 아닌가.

사실 이 표현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라는 환경운동가의 책 제목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오래된 미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보다는 암울한 전망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이를 깨치고 나갈 유일한 방법이 과거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 있다는 주장’이라는 다소 거창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필자는 경관과 문화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래된 미래란, ‘오래전에 시작된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너무도 달라진 현대인들에게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자연과 인간의 공존방식 또는 전통과 미래의 조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도시의 진화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발렌시아를 감아도는 투리아강은 그야말로 역사와 미래를 품고 진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배울만한 ‘오래된 미래’인 듯 싶다.

## 발렌시아,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

발렌시아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스페인 도시로서 현재는 바르셀로나 못지않은 관광도시이다. 축제로 토마토 축제와 라스팔라스라는 불의 축제가 있으며 정렬의 투우경기가 열리고 유명한 발렌시아 축구팀이 있다. 오랫동안 쌀과 오렌지 생산지이기도 하다. 또한 발렌시아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서부 지중해의 중심도시로 쌀농사를 짓는 평야와 오렌지 나무, 황금 해안인 지중해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에 기원전 3세기부터 호시탐탐 그 땅을 욕심내는 민족들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다. 한때 발렌시아를 점령해 황금기를 누렸던 나라로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가 있으며 계속해서 중세에는 서고트족에 의해, 그리고 8세기에는 무어왕국의 수도로서 이슬람문화가 뿌리내리게 된다. 이어 11세기 이후 국토회복운동이 시작되고 13세기에는 아라곤화국에 귀속되어 15세기 이후 산업과 문화의 도시가 되었다가 19, 20세기는 전쟁과 내란으로 도시경제가 정체되기에 이른다. 참으로 사연 많은 도시이다.



〈그림 1〉 다양한 연대의, 다양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발렌시아 건축물들

그런데 사실 발렌시아는 관광대국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치여 늘 3인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못마땅한 발렌시아 시민들은 바르셀로나(참고로 스페인은 현재도 지역별 감정이 좋지 못한데, 바르셀로나는 발렌시아와는 다른 까팔투나 지방이다)를 늘 경쟁상대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심이 결국 효과가 난결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많은 도시들이 이제는 발렌시아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니 말이다.

발렌시아가 지금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된 중심에는 투리아강이 있다. 발렌시아를 관통하여 바다로 연결되는 투리아강은 한때 범람하여 큰 홍수를 낸 하천으로, 이때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연고로(1957년) 강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 도시 외곽으로 물길을 돌리고 원래의 투리아강은 선형의 공원으로 사용하게 된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발렌시아 시민들은 투리아강이라는 세

계에서 제일 긴 공원을 갖게 된다.

실제로 투리아강을 방문해보면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학생들, 조깅하는 사람들 등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강변화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들여다보면 투리아강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 자연과 인간의 공존, 투리아강

발렌시아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출구로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풍성한 신록으로 가득 찬 투리아강이다. 오래된 나무들이 멋지게 드리워진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하천의 전형이다. 그리고 하천변으로 나있는 도로 사이로 아랍드리 가로수 역시 발렌시아 도시의 품격을 한층 더 해주는 듯 하다.

도시에 위치한 탓에 온전한 자연형 생태하천의 그것은 아니지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에서 사는 도시민들을 달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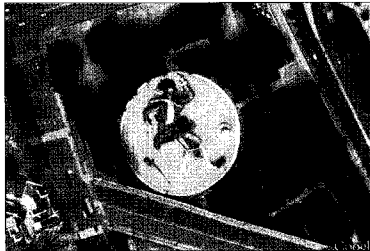
〈그림 2〉 빌바오 중심을 흐르는 네르비온 강과 강변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

기에, 그리고 도보여행으로 지친 유럽방랑자들을 다독여주기  
 에 충분한 녹지이다. 이러한 녹지가 무려 30만㎡, 그것도 도시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니 부럽기 짝이 없다.  
 그치만 솔직히, 이러한 하천녹지가 그저 녹지뿐만 꼭 채워

져 있다면 다른 하천들과 다를 것도 없을 것이다. 투리아강에  
 는 아름답리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잔디밭도 있고 음악당이  
 있으며 놀이터가 나타나기도 하고 테마파크로 연결되기도 한  
 다. 또한 공원 곳곳을 채우고 있는 조형물과 구조물들이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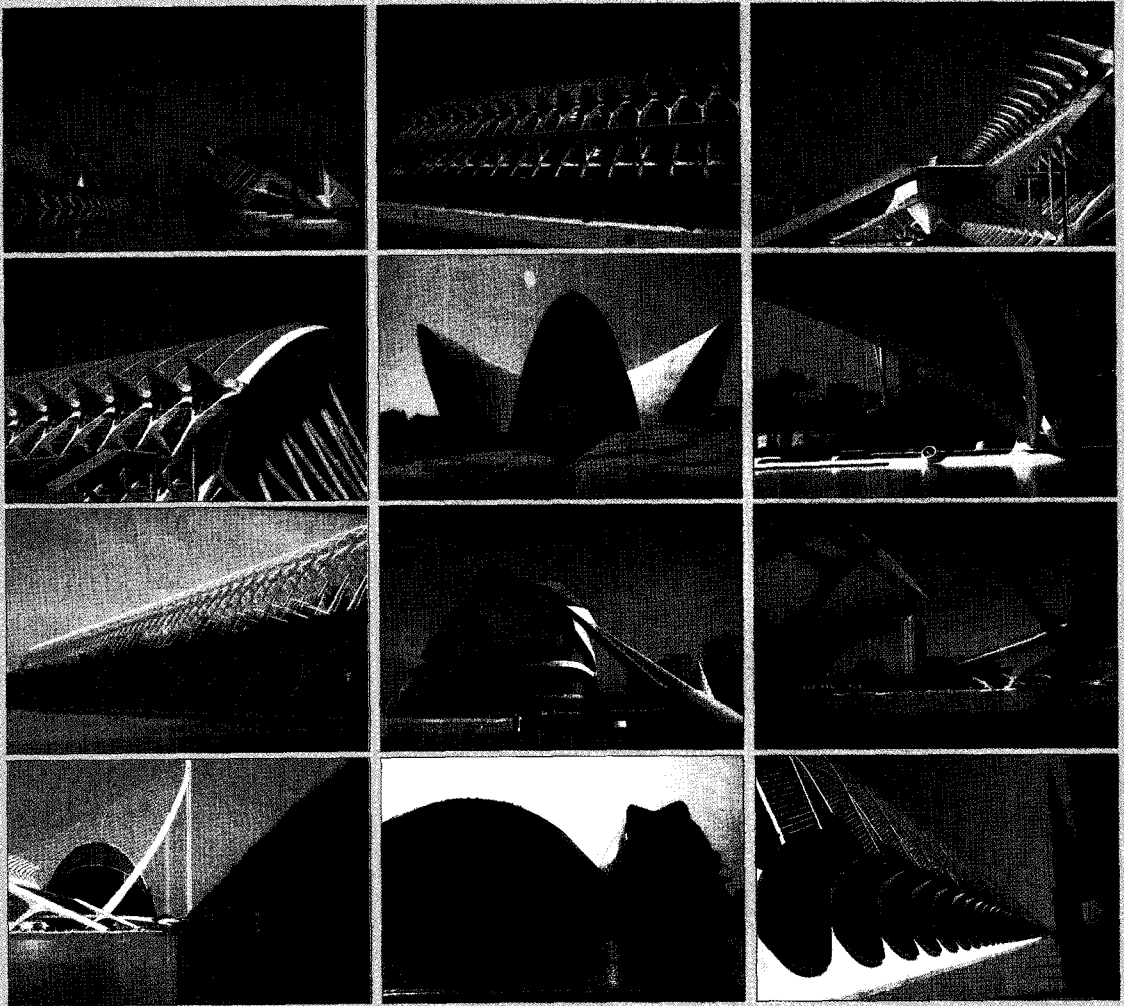
〈그림 3〉 풍부한 녹음의 공원



〈그림 4〉 걸리버가 누워있는 걸리버 파크



〈그림 5〉 음악당 전경(왼)과 공원을 산책하는 할머니와 소풍 나온 아이들



〈그림 6〉 커다란 연못에 담긴 예술과 과학의 도시

의 매력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강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그리고 그렇게 강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강 풍경을 만들어 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음악이 흐르는 공기, 조깅하는 사람의 힘찬 발돋움, 모두가 조화되어 빛어내는 투리아강의 모습이다.

도시에 있어서 강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마치 한옥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폐가가 되듯이 도시의 강 역시 사람이 부대끼면서 드니들 때 그것의 소중한 공유했고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게 되지 않을까.

### 전통과 미래의 조화, 투리아강

발렌시아를 속속들이 보고 싶다면 그냥 투리아강을 따라가면 된다. 투리아강 도로 건너편만 봐도 심상찮은 역사적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등 건축 양식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발렌시아 구시가지가 투리아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발렌시아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한데, 학창시절 세계사에서 들어왔던 다양한 건축양식들이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강을 횡단하는 교량 역시 딱 봐도 오랜 세월 많은 이야기들을 품었음 직하다.

그러나 투리아강이 단순히 구시가지 옆에 있다고 해서 전통과 미래의 조화라고 말하기는 부족할 터. 투리아강의 꽃은 단연 '예술과 과학의 도시'이다.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발렌시아에서 태어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의해 설계된 예술과 과학의 도시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건축학적 측면에서 유선형의 수려함과 강렬한 직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작이라 평가받는다. 또한 지상과 지하, 건물 내부와 외부가 절묘하게 연결되고 경관적으로 배치되어 보는 사람으로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뚜렷한 개성을 지니면서도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투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수면에 반사된 경관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있다면 발렌시아에는 산티아고가 있으니 부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이런 멋진 랜드마크를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하고 또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니, 자신들의 도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고한 역사의 면면과 미래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예술과 과학의 도시, 단순히 시각적으로 멋져보이는 것을 떠나서 그곳에서는 이 땅의 역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더욱 알찬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들이 발렌시아라는 도시를 더욱 특별히 기억하게 하고 해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결국 전혀 다른 외양을 하고 있지만 전통과 미래는 그렇게 조화되고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투리아강으로 연결되고 있다.

## 그러나 물이 없는 강

전통을 간직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도시, 발렌시아, 발렌시아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부하는 시민들. 또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환경을 가꾸어 나간다. 정말이지 바람직한 순환작용이 아닌가.

다만 아쉬운 것은 강의 물줄기를 도시 외곽으로 돌리고 나서 투리아강에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류쪽의 생태공원지역과 공원 중간의 친수시설, 예술과 과학의 도시의 거대한 연못과 교량들만이 강이었던 흔적을 비춘다. 그렇다. 투리아강은 물이 없는 강인 것이다. 강이 강다울

때 비로소 꼭 차있을텐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강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획기적인 계획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지만 기존의 물줄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단 사실에서 왠지 자연을 거스르는 듯한 거부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는 동양인의 시선을 지니고 있어서일까?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투리아강만 끼고 돌면 발렌시아 역사와 미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지만 발렌시아에는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